

2023

Bupyeong Gu

2023년(22년실적) 부평구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2023. 7.



KmAC

2023년도(22년도 실적) 부평구문화재단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1. 2023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

- 2023년 부평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부평구 1개 출연기관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86.02점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평가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1]과 같음.
- 평가 등급은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르면 전체 5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음.

구분 / 출연기관	총 점	리더십 (12점)	경영 시스템 (20점)	일자리 확대 (7점)	사회적 책임 (19점)	경영 성과 (42점)	평가 등급
(재)부평구문화재단	86.02	9.64	16.04	7.10	14.69	38.55	나

[표 1-1] 부평구문화재단 경영평가 평점 결과

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표 1-2]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 부여기준

2. 기관 경영실적평가 평점표

구분	세부 평가내용	유형	배점	득점
I. 경영관리 (58점)	1. 리더십 (12점)	12.00점		9.6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정성	6.00점	5.00
	2) 전략경영	정성	6.00점	4.64
	2. 경영시스템 (20점)	20.00점		16.04점
	(1) 조직·인사관리 (8점)		8.00점	6.03점
	1)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정성	4.00점	3.03
	2) 지원기능 인력 비율	정량	1.00점	1.00
	3) 관리직 비율	정량	1.00점	1.00
	4)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정량	1.00점	1.00
	5) 임·직원 교육 실적	정량	1.00점	0.50
	6) (감점) 채용비리 방지	정량	(-1.5점)	-0.50
	7) (감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정량	(-1.0점)	0.00
	(2) 재무관리 (12점)		12.00점	10.01점
	1) 재무관리의 적정성	정성	5.00점	3.90
	2) 자체수입률	정량	1.00점	1.00
	3) 일반관리비 충당율	정량	1.00점	1.00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정량	1.00점	0.91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정량	1.00점	1.00
	6) 조달계약 실적	정량	1.00점	1.00
	7) 인건비인상률 준수	정량	1.00점	0.20
	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정량	1.00점	1.00
	3. 일자리 확대 (7점)	7.00점		7.10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혼합	7.00점	7.10
	4. 사회적 책임 (19점)	19.00점		14.69점
	1) 소통 및 참여	혼합	4.00점	3.20
	2) 윤리경영	정성	2.00점	1.58
	3) 인권경영	정성	2.00점	1.70
	4) 재난·안전 관리	정성	4.00점	3.60
	5) 안전사고 건수	정량	1.00점	1.00
	6) 지역상생 발전	혼합	6.00점	3.61
II.	1. 주요 사업 (7점)	7.00점		5.60점

구분	세부 평가내용	유형	배점	득점
경영성과 (42점)	1)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정성	7.00점	5.60
	2. 경영효율 성과 (25점)	25.00점		23.57점
	1) 공연·전시·교육 공간 가동실적	정량	3.00점	2.51
	2) 문화예술 향유	정량	4.00점	4.00
	3) 문화예술 지원	정량	2.00점	2.00
	4) 문화복지	정량	1.00점	1.00
	5) 문화예술 교육	정량	4.00점	4.00
	6) 도서관 회원등록 수	정량	1.00점	0.89
	7) 도서 대출 건수	정량	1.00점	0.78
	8) 정보자원 협력서비스(상호대차) 실적	정량	1.00점	1.00
	9) 책 읽는 부평 운영 실적	정량	2.00점	2.00
	10) 청소년수련관 가동실적	정량	1.00점	1.00
	11) 청소년수련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정량	2.00점	2.00
	12)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컨설팅) 실적	정량	1.00점	1.00
	13)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정량	2.00점	1.39
	2. 고객만족 (10점)	10.00점		9.38점
	1) 고객만족도	정량	10.00점	9.38
총 합 점 수		-	100점	86.02점

3. 2023년도 기관장 이행실적평가 결과 종합

- 2023년(2022년 실적) 부평구 출연기관 대표이사 이행실적평가 대상 1개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6.10점으로 전반적 이행실적은 우수의 수준이며, 세부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음.

구분 / 출연기관장	총 점	지속가능경영 (42.86점/100점환산)	경영성과 (57.14점/100점환산)	평가 등급
(재)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86.10	34.30	51.80	나

[표 2-1] 부평구 출연기관 기관장 이행실적평가 평점 결과

평가 점수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표 2-2]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이행실적평가 결과 평가등급 부여기준

4. 기관장 이행실적평가 평점표

□ (재)부평구문화재단 기관장의 2023년(22년 실적) 평가점수는 86.10점으로 평가됨.

구분	평가부문 및 평가 지표	기관평가 배점	기관평가 득점	기관평가 평점	기관장 배점	기관장 득점
I. 지속가능 경영 (30점)	1. 리더십 (12점)					
	1) 경영층의 리더십 (6점)	6.00점	5.00	83.33	6.00점	5.00
	2) 전략경영 (6점)	6.00점	4.64	77.33	6.00점	4.64
	2. 경영시스템 (18점)					
	1) 조직·인사관리 (8점)	8.00점	6.03	75.38	8.00점	6.03
	2) 재무관리 (10점)	12.00점	10.01	83.42	10.00점	8.34
II. 경영성과 (40점)	1. 주요 사업 (10점)					
	1) 사업성과 적절성 (10점)	7.00점	5.60	80.00	10.00점	8.00
	2. 경영효율성과 (25점)					
	1) 경영효율성과 (25점)	25.00점	23.57	94.28	25.00점	23.57
	2. 고객만족성과 (5점)					

구분	평가부문 및 평가 지표	기관평가 배점	기관평가 득점	기관평가 평점	기관장 배점	기관장 득점
	1) 고객만족 (5점)	10.00점	9.38	93.80	5.00점	4.69
총 합 점 수					70점	60.27점

○ 기관장평가 배점 70점에 대한 득점 60.27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86.10점으로 평가됨.

5. 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요약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구분	리더십 (12점)	조직인사 (8점)	재무관리 (12점)	일자리확대 (7점)	사회적책임 (19점)	경영성과 (42점)	합계 (100점)	등급
점수	9.64	6.03	10.01	7.10	14.69	38.55	86.02	나

평가 영역별 종합평가 의견	
(총평) 우수한 점	(리더십 분야) - 재단은 관내 구민이 생활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70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문화감수성과 역동성 및 공감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일정 수준 구현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과 전직과 같은 인사 조치를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과 예측 가능한 인사업무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재단이 조직 본연의 역할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제로서 주민들의 참여 수준과 범위를 확대한 문화두레시민회를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경영진의 노력으로 인정되며,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각 주요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같은 점검 기제를 활용한 점이 인정됨. - 기관장은 핵심가치 공유와 업무혁신을 위한 내부 소통 강화 일환으로 기관장회의 및 업무보고와 같은 기존 커뮤니케이션 채널뿐만 아니라 운영시설을 순회하면서 가지는 로드체킹 및 각종 간담회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평가 기간 시점 기준 15명이었던 공무원 중 6명을 일반직 및 기술직으로 전직시킨 점은 이들 인력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내부적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재단은 기관이 응대해야 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부평 10대 희망 뉴스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문화도시 비전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외부기관 및 시민 예술가와 연대한 다양한 사업(예: 도시유랑단, 찾아가는 문화도시부평 등)을 수행한 점이 확인됨.
 - 또한 24개의 협업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의 타 지자체, 12곳의 부평구 관련 부서, 그리고 17개의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여, 15개의 외부 기관 및 주체들과의 체결한 MOU중 3개의 MOU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임.
- (전략경영 분야)
 - 기관이 2021년 사업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 후 2022년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점은 사업들의 전략적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조직·인사관리 분야)
 - 재단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화도시센터 내 업무 대상 및 영역을 기준으로 한 3개 팀을 신설한 바, 이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통한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인정됨.
 -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외부 주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함으로써 협업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함.
 - 기관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을 제외한 과반 이상을 법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선임한 점이나,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균 70%에 달하는 외부심사위원을 선임한 점 그리고 신규 채용 계획의 사전 심사로 채용의 적합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임.
 - 재단이 승진 및 보직 인사에 있어, 다양한 평정 요소를 감안하여 승진후보자 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점과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력 배치에 활용한 점은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 및 관련 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 연간 임직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법정 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승진자 및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행한 점이 긍정적이며, 특히, 제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평균 93%에 달한 것은 바람직함.
- 기관의 이사회 인원 중 여성임원 비율이 전기 대비 50% 확대되고, 재단본부 및 위탁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50%~60%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임.

• (재무관리 분야)

- 재단은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평가 기간 중의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의 제 측면을 지출관리와 총괄관리 및 영기준 예산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주요 사업별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12억여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재단은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클린카드 발급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징구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 보증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재단 시설물 별로 집행되었던 유지관리 예산과 방역예산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약 38,000,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점이 긍정적임.

• (일자리 확대 분야)

- 재단은 전년대비 9명의 정원외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됨.
- 복무규정 내 가족 돌봄 휴가 규정의 신설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규정 상의 근거를 마련함.
- 재단은 평가기간 내 7명의 육아휴직자와 47명의 유연근무자를 운영한 것으로 제시한 바, 이는 전체 구성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임.
- 재단은 기존의 1년에 그치고 있던 육아휴직제도를 유급 1년과 무급 1년을 포함한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일자리 질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임기직 5급 폐지 및 7급 임기직 마감을 변경하고, 관련 보수기준을 통일하는 등의 성과가 인정됨.

• (사회적 책임 분야)

- 재단은 청소년 기자단 및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부평별곳”과 “깨알모이는 도시 실험” 등과 같은 주민참여형 예산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 비중이 총 예산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임.
-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개(39건)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실효적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으로 운영(56건)한 것이 인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속도가 평균 1~4일 정도로 집계되는 바, 관련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문화도시 부평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사업 만족도 및 인식 개선 평가를 진행한 점이 확인됨.
- 재단은 노사상생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팀별 중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전사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에 대응되는 내부 규정을 제·개정한 것이 확인되며, 특히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이행 점검에 따른 채용 제도 관련 규정을 전체적 검토하였으며, 보수규정과 직원의 징계 양정에 대한 내규 역시 개선한 것이 인정됨.
-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상위기관인 구청의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이외에 홈페이지 및 서면을 통한 민원 처리를 100% 완료한 점이 확인됨.
- 재단은 기관/부서별로 기록물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기록물 유형별로 보존 연한 설정과 전자기록물에 대한 암호화 설비 및 보안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임.
- 재단의 인권경영 선언 후속 이행 방안을 적절히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공정한 재단 운영 노력으로 민원 접수가 대폭 감소한 점이 확인됨.
- 재난안전 사고 예방 노력으로 발생 건수가 없는 점이 긍정적임.
- 지역상생 차원에서 재단의 구매 업무를 지역 내 업체들과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음.

• (경영성과 분야)

▶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관련

-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의 고유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음.
- 목표를 위한 각종 고유사업들을 계획대로 수행 중이며,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함.

▶ '경영효율 성과 평가지표' 관련

- '공연·전시·교육 공간 가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완전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양호한 실적 향상을 보였으며, 각 시설들의 가동률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도 존재한 점은 긍정적임.
- '문화예술 향유' 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확연히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참여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로 사료됨.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동호회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함. - '문화복지' 사업의 경우,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예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한 점이 인정됨. -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유료임에도 참여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 '도서관 회원등록' 사업의 경우, 회원등록 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탄력성이 크지 않아 단기간 급증은 어려움에도 등록자 수가 급감 없이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도서 대출' 사업의 경우, 도서관 고유 업무의 하나인 도서대출 건수 증가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어 긍정적 신호로 사료됨. - '정보자원 협력서비스(상호대차)' 사업의 경우, 도서관 간 상호대차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의 결과물로 판단되어 긍정적임. - '책 읽는 부평 운영' 사업의 경우, 동 지표에 대한 실적의 증가는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서 역할이 추가되는 긍정적 효과로 보임. - '청소년수련관 가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엔데믹 상황 속에서 가동률 100%의 실적은 긍정적임. - '청소년수련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동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컨설팅)' 사업의 경우, 센터에서는 지역 내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 상담 및 교육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급 학교,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여 방문 교육이 수행됨.
(총평) 미흡한 점 & 개선과제	• (리더십 분야) - 재단의 문화도시부평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일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환류되기보다는 각 사안 별로 처리됨으로써 그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그리고 인권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 대한 제반 환경적 요소들(예: 매뉴얼)이 아직 정비되고 있지 못한 점은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재단이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필기시험 위탁 운영을 결정한 이유는 인정되나, 해당 전형의 실효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부 검토 기제가 미흡한 것은 향후 개선할 것을 제안함.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 기관이 수행한 지역민 주도의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사업들의 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기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적 기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활동의 개선을 권고함.

• (전략경영 분야)

- 재단이 설정하고 있는 핵심가치(문화감수성, 역동성, 공감성)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공유 및 내재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즉, 왜 이들 핵심 가치들이 기관의 핵심 가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단이 설정하고 있는 비전 및 전략 체계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전략과제 중 3가지(주민이 주도하여 가꾸는 지역문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재단, 열린 마음으로 듣는 문화재단)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비전에 가까운바, 이에 대한 세부 조정을 권고함.
- 기관이 경영전략에 대응하여 도출한 9개 전략과제가 SWOT 분석 결과 도출된 S-O, W-O, S-T 및 W-T전략 내용과 명확하게 매칭되고 있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2022년 재단이 수행한 ESG 관련 사업들이 전체적인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여 환류하는 내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조직·인사관리 분야)

- 재단이 외부 협업체계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고자 했던 노력에 비해 내부 부서간의 협업 및 공조 체계를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은 해당 인력운영계획이 밝히고 있는 필요 인력 수요량이 면밀하게 파악된 실질적 업무 수요라기보다는 추가되는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필요 인력 수요를 어떤 인력수급방법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균형 성장을 위한 적정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로 도출된 인력구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 기제가 미흡한 바, 해당 인력구조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승진후보자 순위 결정 요소에 경력평정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여타 평정 요소, 즉 역량과 성과 및 복무평정과 같은 요소들의 비중에 비해 그 결정력이 높아 자칫 연공서열 기준의 승진제도 운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기관의 보다 면밀한 분석을 권고함.
- 기관이 시행한 인사운영 개선 설문 조사 결과, 주로 기획/평가, 감사, 인사,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노무, 회계 등 지원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원인 파악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역량 모델링 기반의 개인별 역량 향상 계획 수립' 과정에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제를 성과평가 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기관은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인별 성과평가 등급이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개인별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완이 요구됨.

• (재무관리 분야)

- 재단이 제시한 중기재정운영계획은 2020년에 작성된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2020년 이후 변화된 기관의 내·외부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제시된 '예산 운용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와 환류시스템 연계' 부분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예산이 아닌 모든 사업을 일정비율 삭감 또는 증액하는 형태로 예산 편성'하는 관행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권고함.
- 재단은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관련 실적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함.
- 주요 사업별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활용 예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바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자리 확대 분야)

- 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기관의 역할 및 수행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 노력이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 검토를 권고함.
- 재단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안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실적 검토와 환류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사회적 책임 분야)

- 기관이 '문화도시를 통한 부평의 정체성 확보 효과' 측면에서의 목표치를 전년 대비(69.7점) 0.3점 상향한 목표치(70점)로 설정한 것은 너무 보수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여 향후 보다 도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SNS 채널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 기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함.
- 기관이 운영 중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조합대표가 지정한 조합원 6명에 대한 '근무시간 내 1,000시간 면제' 사항과 활동 내용에 대한 재단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 및 부패상담 신고센터의 운영이 적극 내·외부에 홍보되어 운영되도록 관련 활동의 강화가 요구됨.
- 비 전자기록물 전담인력이 각 팀 서무담당으로 지정되고 있는 바, 해당 인력들이 순환 배치되는 경우(특히, 2년을 기준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 비전자 기록물 보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재단의 검토를 권고함.
- 느슨한 감이 있는 인권경영 4개년 추진 로드맵을 1~2년 단축이 바람직함.
- 상생차원으로 지역 내 업체와 구매나 계약 추진 시 투명성, 공정성 시비 여지가 있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로 하되 지역 업체에 제한하거나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예술가 지원사업 공모에도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경영성과 분야)

▶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관련

- 유사한 규모의 공간에 대해 가동률이 현저히 다른 경우 보고서 상에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고유사업 성과관리에 자율평가 보다는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단 구성이 필요해 보이며, 고유사업에 포함된 국내외 교류 사업의 실적은 재단의 보다 관심과 확대가 필요함.

▶ '경영효율 성과 평가지표' 관련

- '공연·전시·교육 공간 가동' 사업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공간에 대해 가동률이 현저히 다른 경우 구체적인 원인과 진단, 대책의 제시가 명확히 실적보고서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부평문화사랑방'과 기타 시설의 '스튜디오C'는 소규모 공간들인데 비슷한 '공감168'이나 여타 기타시설의 공간들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공간들을 이용도가 높은 활동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길 권고함.

평가 영역별 평가결과 요약

- '문화예술 향유' 사업의 경우, 실적보고서 작성 시 참여실적 요약표 안의 인원 데이터를 뒤에 제시되는 실적 총괄표와 같이 연간 실참여자 수로 통일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개 유료로 진행되는 바, 각 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 혹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강사와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 설계를 통한 기대도와 만족도 그리고 개선사항 등의 사후 피드백을 통한 질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도서관 회원등록 수' 사업의 경우, 평가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도서관 회원 등록자 수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일일, 월별, 연간을 기준으로 도서관 입장 이용자 수나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로그인 횟수,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표화 하는 것을 검토 가능함.
- '도서 대출 건수' 사업의 경우, 도서대출 실적은 도서관 이용의 질 평가와 관련된 지표이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별다른 영향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가진 지표로서 이 지표와 아울러 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서관별 장서 수와 신간 구입 예산과 구매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수련관 가동실적' 사업의 경우, 청소년 복지시설인 동 시설의 가동률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운영실적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연간 운영가능일 수보다도 운영일 수가 더 많았다는 의미로서 향후 실적보고서에 동 실적의 산출 내용과 운영 가능일 수 보다 운영일 수가 100%를 초과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컨설팅)' 사업의 경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문화 상담은 현재 자발적으로 방문한 상담이 10%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정법원의 수강 명령을 받은 대상자나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센터의 홍보나 적극적 노력을 통한 자발적 상담 참여자의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 각급 학교,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여 기관이 주도적으로 방문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동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